



'홍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 중 한 장면.

“주혁이형 보고 싶어요”

주혁 사극 첫 도전한 정우
김주혁 유작으로 남아
고전소설 '홍부전' 재해석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죠. 주혁 씨는 그날 결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여덟 시쯤 혼자 영화사에 왔어요. 얼굴이 벌그스름한 게,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같

이 하지고 했더니 ‘네’ 하고 훌쩍이 사라졌어요. 캐릭터에 대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다들 욕심을 많이 내서 행복한 고통이었죠.”
영화 ‘홍부’는 지은이와 창작 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고전소설 ‘홍부전’의 탄생과정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다. 지은이가 바로 소설의 주인공 홍부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픽션 사극이다.
권력다툼으로 백성들의 삶은 폐해져 가던 조선 헌종 때, 천재작가 홍부(정우 분)가 어릴 적 헤어진 형 놀부(김주혁)를 찾으려고 글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게 영화가 설정한 홍부전의 탄생 비화다.
김주혁이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며 존경받는 조혁을 연기했다. 그의 형 조항리(정진영)는 권세에 눈이 먼 아심가다. 홍부가 전혀 다른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아 쓴 홍부전이 조선을 뒤흔든다. 조항리는 이를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킬 계획을 세운다.
악역을 맡은 정진영은 영화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도 많이 다른 세상이 됐지만, 최근에 겪은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과도 겹쳐질 것”이라며 “조항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몇 분이 계속 생각나서 캐릭터 안에 넣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해인은 세도정치로 힘 빠진 임금 헌종 역을 맡았다. 진구가 민란군 수장 놀부(김주혁), 천우희는 홍부의 집필을 돕는 제자 선출 역으로 관객을 만난다. 영화는 다음 달 설 연휴에 개봉한다. /연합뉴스

“주혁이 형,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정우는 9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홍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 제작보고회에서 “많이 보고 싶다”고만 반복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이 영화에서 김주혁과 연기 호흡을 가장 많이 맞춘 배우다.
상투를 틀고 턱수염을 기른 김주혁의 촬영 당시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자 장내가 더욱 숙연해졌다. 김주혁은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촬영을 마치고 이 영화를 유작으로 남겼다.
사극에 처음 도전한 정우는 “주혁 선배가 함께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너무 배려심 있게 저를 많이 안아주셨고 한발 떨어져서 지켜봐 주셨어요.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선배님이 하는 내레이션이 있어요. 그 메시지와 선배님 목소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근현 감독은 “한 번쯤 꼭 함께 해보고 싶은 배우였는데 어느 날 기적처럼 제 앞에 있더라”며 김주혁을 캐스팅할 당시를 떠올렸다.

영화 ‘1987’ 박스오피스 1위에

누적 관객 426만 9000명 돌파
‘신과함께’ 아시아권 흥행 질주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사진)이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987’은 전날 17만9815명을 동원하며 지난달 27일 개봉 이후 처음으로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426만9287명이다.
‘1987’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람해 화제의 중심에 섰고, 정치권과 경찰, 학생, 민주화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단체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장준환 감독의 밀도 있는 연출과 배우들의 명연기도 호평을 받고 있어 장기흥행이 예상된다.
‘신과함께’는 전날 17만4224명을 불러모아 지난달 20일 개봉 이후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다. 누적 관객 수는 1천167만6701명이다.
그러나 한국을 넘어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

만에서 개봉한 ‘신과함께’는 3주 연속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말까지 200만 대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2017년 개봉한 아시아 영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신과함께’는 오는 11일에는 홍콩 전체 53개 극장 가운데 51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는 홍콩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상영관 수로, 사전 유료 시사회 당시 관객들의 엄청난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신과함께’는 베트남에서는 2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각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개봉하며 미얀마, 필리핀에서도 1월 중 공개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신과함께’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경실, 2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KBS ‘파도야 파도야’ 출연



방송인 이경실(52·사진)이 2년여 만에 정식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KBS는 9일 “이경실이 오는 2월 5일부터 방송할 아침 일일극 ‘TV소설 파도야 파도야’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2015년 말부터 벌어진 남편의 성추행 관련 재판 이후 방송 활동이 뜸했다.
JTBC ‘유사실 삼팔자’, KBS ITV ‘아침마당’ 등에는 자녀들과 간간히 모습을 비쳤지만 드라마 출연은 2015년 MBC TV 드라마 ‘이브의 사랑’ 이후 2년여 만이다.
이경실이 출연할 ‘TV소설 파도야 파도야’는 전쟁으로 전 재산을 잃고 이산가족이

된 오복실과 그의 가족들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주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2018 무술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0 좋은아침
10	0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5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재)		00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1	20 행복한 지도 50 UHD 한식의 마음	50 흑기사 (재)	25 로봇이 아니야 (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12	00 KBS 뉴스 12 30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다큐 3피어더, 평창(재)		00 12 MBC 뉴스 20 좌옹우물 만국유람기 (재)	00 특집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2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다큐 눈길 청년 김마그너스의 도전 (재)		15 하하랜드 스페셜	55 닥터 365
2	15 평창 패럴림픽 G-100 특집 불꽃처럼 뜨겁게(재)	00 생활의 발견 50 자공공부책상 위키 2	20 양코르 MBC 스페셜	00 특집 뉴스브리핑
3	05 2018 평창 패럴림픽 특집 평창에서 희망을 쏘다 55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20 문화사색	
4	00 4시 뉴스집중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첼리코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성에 웬수들 (재)	00 특집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평창동계올림픽 G-30 특별생방송 하나뿐인 열정, 이제는 평창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항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다 55 지식 통조림
7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성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채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KBS 다큐 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10	3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05 문화의 향기 5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생민의 영수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박스 라이프 1~2부
12	50 인간극장 스페셜 (재)	20 세상의 모든 다큐(재)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글로벌 여행 찾아 삼만리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잔치음식 대만 마추추체, 순례자의 만찬)	10:30 한국기행(재)	16:30 한글이 야호(재)	<이것이 진짜 스키링> -이유보완 불교왕국의 비밀>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무말랭이 떡볶이)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 나는 견(犬)이다 -정군기와 1박 2일>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큐프라임 <백강, 위대한 왕국의 꿈>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00 EBS 정오 뉴스	17:30 똑딱맨	22:45 극한직업 <혹한의 채취 작업 - 연근과 취>
07:30 똑딱맨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45 뽀뽀뽀 뽀로로	23:35 장수의 비밀
07:45 뽀뽀뽀 뽀로로	12:40 지식채널e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24:25 지식채널e
08:00 당동당 유치원 1~2	12:45 EBS 초대사(재)	19:00 몬카트(재)	24:30 미래강연 Q <세상을 바꾸는 질문을 하라>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13:40 미래강연 Q(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08:45 한글이 야호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9:30 EBS 뉴스	
09:00 레이디비그	15:00 마사와 곰	19:50 장수의 비밀	
09:30 물방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20:40 다큐 오늘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캐그 먹고 행복하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0일(음 11월 24일 壬寅)

子	48년생 재물을 의식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60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72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84년생 누적되어 온 것을 정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1, 50	午	42년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54년생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66년생 해악이 예상되던 감금죄가 제거해야 한다. 78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90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으니 눈치 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7, 79
丑	49년생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니 예견할 수 있으리라. 61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73년생 소신껏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85년생 능력은 충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4, 40	未	43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55년생 더불어 어울림 피해를 볼 수 있다. 67년생 뒷말이 많아야 아랫목도 맑아지는 법이다. 79년생 조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91년생 믿고 의지했던 바가 사라지는 구도이리라. 행운의 숫자 : 39, 19
寅	50년생 평소 애수고대하며 갈구하여 왔던 바를 이룬다. 62년생 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어질 수도 있다. 74년생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6년생 집착이 못한 불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2, 06	申	44년생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부담감을 줄 수도 있으나,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56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으니라. 68년생 기본적인 사실 속에서 중차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80년생 소강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57, 02
卯	51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울 수가 있다. 63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라. 75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라. 87년생 남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7, 61	酉	45년생 통한 것은 많고 갈한 것은 적어 보인다. 57년생 율동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69년생 신속성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81년생 감정에 치우쳐서 속내를 노출한다면 쉽게 상실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2, 73
辰	52년생 서열은 생각하고 한시비해 본론으로 들어가야 좋다. 64년생 완성을 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76년생 고점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88년생 실적보다는 상호적인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72	戌	46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8년생 남의 시선이나 체면을 의식하지 않는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할 때이다. 70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82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81, 87
巳	53년생 문제점이 서로 엉겨서 오랫동안 지연되는 양태이다. 65년생 경사로운 자리에서 걸인을 만날 것이다. 77년생 부실함은 약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89년생 상대가 가려워하는 부분을 끊어 주어야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45, 09	亥	47년생 뒷 배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59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번거로울 뿐이니 실질적인 대응이 좋다. 71년생 듣고 접하다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83년생 집담함은 차치하고 핵심 현안에 집중하자. 행운의 숫자 : 97,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